

D



2024년 10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에서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이니셔티브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젤 비엔(Gisèle Vienne)의 작품 *사람들(Crowd)*을 감동적인 무대로 선보입니다.

DANCE BY
REFLECTIONS
VAN CLEEF & ARPELS

SUPPORTING
CONTEMPORARY
DANCE



보도자료

사람들(*CROWD*) 지젤 비엔(*GISÈLE VIENNE*)

목차

사람들(*Crowd*)

지젤 비엔(*Gisèle Vienne*)

서울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지젤 비엔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Gisèle Vienne and Dance Reflections*)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그리고 댄스



지젤 비엔(*Gisèle Vienne*)
사람들(*Crowd*)
© Estelle Hanania

사람들(CROWD)

2024년 10월 26일 및 27일 서울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작품 *사람들(Crowd)*에서, 지젤 비엔(Gisèle Vienne)은 개인마다 지닌 특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룹이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관계를 살펴보고 지속적인 탐색을 이어갑니다. 무용수들과 작가 데니스 쿠퍼(Dennis Cooper)의 상상으로 탄생한 등장인물의 정체성은 수차례 반복된 수정으로 구체화되었고, 작품은 더딘 느낌과 이와 대조를 이루는 잠재적인 힘을 펼쳐내는 군중에 의해 점차 해체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작품에서 함께 등장하는 일렉트로닉 음악은 몽환적으로 시간을 뒤틀린 듯 표현하고, 관객들을 꿈과 무아지경(rave-trancer)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만나게 합니다. 파티를 위해 모인 15명의 무용수는 안무를 펼쳐내며 다성 음악처럼 폭넓은 구성으로 집단적 이상향을 표현하는 토대가 되는 메커니즘을 조명합니다.

지젤 비엔(Gisèle Vienne)
사람들(Crowd)
© Olivia Bee



지젤 비엔(GISÈLE VIENNE)

지젤 비엔(Gisèle Vienne)은 프랑스계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예술가이자 안무가이며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프랑스 국립 인형극 학교(École Supérieure Nationale des Arts de la Marionnette)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지난 20년간 선보인 무대와 안무 작품들은 *아이 어폴로자이즈(I Apologize, 2004)*, *킨더토텐리더(Kindertotenlieder, 2007)*, *저크(Jerk, 2008)*, *디스 이즈 하우 유 윌 디스어피어(This is how you will disappear, 2010)*, *라스트 스프링: 에이 프라켈(LAST SPRING: A Prequel, 2011)*, *더 벤트릴로퀴스트 컨벤션(The Ventriloquists Convention, 2015)*을 포함하여 유럽 투어와 아시아 및 미국에서 공연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지젤 비엔은 에티엔 비도레이(Etienne Bideau-Rey)와의 협업으로 2001년에 첫선을 보인 작품인 *쇼룸더미스(ShowroomDummies)*의 네 번째 버전과 함께 로베르트 발저(Robert Walser)의 *더 레이크(Der Teich)*를 기반으로 한 단편연극 *레땅(L'Étang)*을 교토 롬 시어터(Rohm Theater Kyoto)에서 선보였습니다.



© Andrea Montano

지젤 비엔(GISÈLE VIENNE)

지젤 비엔(Gisèle Vienne)은 뉴욕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파리의龐피두 센터(Centre Pompidou),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립현대미술관(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파리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Paris)에서 사진과 설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데니스 쿠퍼(Dennis Cooper), 피터 레버그(Peter Rehberg) 및 조나단 캡드비엘(Jonathan Capdevielle)과 공동 작업한 *저크// 쓰로우 더 티어스* (*Jerk// Through The Tears*, 2011)와 데니스 쿠퍼(Dennis Cooper) 및 피에르 두르트(Pierre Dourthe)와 협업으로 집필한 *40 포트레이트 2003-2008* (*40 Portraits 2003-2008*, 2012)의 두 권을 출판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다양한 출판물로 만나볼 수 있고, 작품에 등장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여러 앨범들에 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파리 가을 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에서 그녀는 “포트레이트(*Portrait*)”라는 주제로 2개 작품, 레퍼토리에서 선정한 4개의 작품, 파리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Paris) 전시, 그리고 같은 해에 제작된 영화 “저크(*Jerk*)”를 구성하여 선보였습니다.

최신 작품인 *엑스트라 라이프*(*EXTRA LIFE*)는 2023년 8월 루르트리엔날레(Ruhrtriennale) 페스티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지젤 비엔(Gisèle Vienne)
레탕(*L'Étang*)
© Estelle Hanania



서울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2001년 시작된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는 매년 10월 한 달간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으며, 국제 공연 예술제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대중이 나누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는 현대 예술, 공연, 워크숍 및 포럼으로 구성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컨템포러리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페스티벌이며 아티스트들이 품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저력을 조명합니다. 포용성, 다양성, 예술과의 열린 만남, 환경을 향한 존중이 지닌 가치를 지지하는 행사입니다.

지역성을 촉진하고 지역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는 SPAF는 글로벌 관점을 통해 연대와 협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대중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 SPAF

지젤 비엔(GISÈLE VIENNE) 그리고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과 지젤 비엔(Gisèle Vienne)의 이야기는 2021년 파리 가을 축제에서 그녀의 작품 포트레이트(Portrait)를 지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은 레퍼토리 작품 디스 이즈 하우 유 윌 디스어피어 (*This is how you will disappear*, 2010)를 새롭게 부활시켜 런던에서 열린 제1회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 페스티벌(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Festival)에서 공개했습니다.

같은 해, 작품 사람들(Crowd)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리지널 버전으로 공개되었고, 2023년 홍콩에서 열린 제2회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으로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젤 비엔(Gisèle Vienne)
디스 이즈 하우 유 윌 디스어피어
(*This is how you will disappear*)
© Olivia Bee



지젤 비엔(GISÈLE VIENNE) 그리고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2023년 말, 뉴욕에서 세 번째로 열린 본 페스티벌은 2021년에 탄생한 작품 레땅(L'Étang)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댄스 리플렉션은 지젤 비엔(Gisèle Vienne)의 작품 엑스트라 라이프(EXTRA LIFE)의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이 작품은 디스 이즈 하우 유 윌 디스어피어(This is how you will disappear)와 더불어 샤이요 국립무용극장(Chaillot-Théâtre national de la Danse)이 2023-2024 시즌에 선보인 작품들 중 하나였습니다.

2024년,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은 작품 사람들(Crowd)의 아시아 지역 투어 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에서 폐막작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11월 초 타이페이의 국립극장에서도 시즌 프로그램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지젤 비엔(Gisèle Vienne)
엑스트라 라이프(EXTRA LIFE)
© Estelle Hanania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 (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2020년에 설립된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은 창작, 전승 그리고 교육이 지닌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무 유산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와 단체를 지원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은 시작의 순간부터 현재까지도 다양한 단체들이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무대에서 작품을 발표하게 하고 무용단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2022년 3월 런던, 2023년 5월 홍콩, 2023년 10월 뉴욕에서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페스티벌과 같은 주요 행사를 통해 매년 더욱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창작 및 안무 작품의 육성과 더불어, 댄스 리플렉션은 전승과 교육이라는 가치에 대해 중요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전문가, 비전문가, 청중을 모두 대상으로 안무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아트 레지던시를 조직화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 다채로운 구성으로 이루어진 14개국의 45명의 파트너가 활동하며 개별 프로젝트의 전개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DANCE BY
REFLECTIONS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그리고 댄스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1920년대부터 무용계와 밀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메종이 소중히 지켜온 무용계와의 관계는 클로드 아펠(Claude Arpels)과 안무가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의 만남 이후부터 더욱 깊어졌습니다. 프레셔스 스톤을 향한 두 사람의 열정은 점차 예술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였고, 1967년 4월에 뉴욕에서 초연으로 막을 올린 발란신의 발레 작품 *주얼스(Jewels)*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무용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2012년에 뉴욕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이자 L.A. 댄스 프로젝트의 창립자인 벤자민 밀레피드(Benjamin Millepied)와 새로운 협업이 시작됩니다.

2020년 메종은 반클리프 아펠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을 출범하며 무용 예술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다시 새롭게 공고히 했습니다.



스페인어(Spanish) 발레리나 클립, 1941년
플래티넘, 옐로우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컬렉션



발레리나(Ballerina) 클립, 1967년
플래티넘, 옐로우 골드,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www.dancereflections-vancleefarpels.com

프레스 라운지

아래의 주소로 프레스 라운지를 방문하여 보도 자료와 동영상 및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esslounge.vancleefarpels.com/>

아직 계정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계정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VCAdancereflections #VCAdance #VanCleefArpels
#VCA댄스리플렉션 #VCA댄스 #반클리프아펠
@vancleefarpels

